

국힘, 2차 레이스 윤 vs 홍 '진검승부'

후보 8명 압축 ... 토론회·당원투표 변수

유승민·원희룡·최재형도 맹추격 예고

국민의힘이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경선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면서 경선레이스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경선 진출후보 4명을 확정하는 오는 10월 8일 2차 예비경선까지 6차례의 토론회와 당원투표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1차 예비경선에서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가나다순)가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일단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론조사 지지율 상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1~2위를 놓고 오차범위 안팎의 경쟁을 벌였을 것이라 관측이 당내에서 흘러나온다.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윤 전 총장은 그동안 '반문'의 기수라는 상징성을 발판으로 줄곧 야권 지지율 1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윤석열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는 홍 의원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선두권 다툼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2차 예비경선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은 본선 경쟁력을 내세워 대세론을 시도하고, 홍 의원은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바람'을 앞세워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추격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자들마다 보수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과 수도권·청년층 표심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6일을 시작으로 9월 23일·26일·28일, 10월 1일·5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TV토론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레이스 돌입 이후 국민의힘은 토론회 대신 후보들을 상대로 압박면접, 유튜브 라이브 방송만 진행했던 터다.

유승민·원희룡 후보 등은 토론회를 통해 '준비된 후보'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윤 전 총장과 자연스럽게 대비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비중이 높아지는 '당원투표'도 변수다. 1차 예비경선은 '일반 여론조사 80%



15일 국민의힘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윤석열(사진 왼쪽 맨위부터 시계방향),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하태경, 황교안, 안상수 후보. /연합뉴스

+당원 여론조사 20%'로 진행됐지만, 2차 예비경선은 '일반 여론조사 70%+당원투표 30%'로 진행된다.

대체로 일반 여론조사보다 당원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홍 의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심과 민심이 일치될 것이라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지난 6·11 전당대회 당시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은 27만7,000여명이었으나, 이후 석달 간 13만~14만명 이상이 추가로 가입한 상태다. /연합뉴스

청, NSC상임위서 북 미사일 발사 논의

동향 분석 향후 대응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해군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후에도 추가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나아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보정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

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각종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NSC 상임위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중부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종로·서초갑 보궐...여야 거물 등판

임종석·추미애·최재형·나경원 등 후보 거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15일 의원직 사퇴로 진행될 서울 종로 보궐 선거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 1번지'로 불릴 만큼 정치적인 상징성이 큰데다가 내년 대선 때 같이 치러지면서 여야 거물들이 대선 후보와 사실상 러닝메이트를 이루면서 대결을 벌일 것이라 관측에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임 이사장은 현재 경문협 관련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이유로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당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 광진구가 직전 지역구였던데다가 경선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권리당원 등을 비롯한 개혁 세력의 지지도도 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름이 나온다. 감사원장 재직 당시 종로와 연을 맺은 바 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현역 당협위원장인 정문헌 전 의원도 잠재적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구원등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주변에서는 종로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이끌고 종로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까지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 같은 견해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호승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서초갑도 무주공산이다.

서초가 보수정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 곳에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주로 거론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출마해 대중 인지도도 쌓은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과 서초갑 의원이었던 이혜훈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민주당에서는 작년 총선에서 윤 의원에 고배를 마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강남구 을에서 낙선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뛰어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정 득표' 무효 확정...이재명 지지율 상향

이낙연 등 추격자 반발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도하차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얻은 표를 전부 무효처리하기로 15일 결정했다.

나머지 주자들의 득표율이 조정되면,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본선 직행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 전 총리 사퇴에 따른 득표율 산정 방법을 의결했다고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별당규에 따라 정세균 후보가 얻은 투표는 무효 처리한다"며 "정 후보의 득표를 분모인 유효투표수에 포함되지 않게 계산하고, 그에 따른 과반수를 최종적으로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주자의 득표율은 본인이 받은 표를 분자로, 전체 경선 유효투표수를 분모로 해서 산출된다. 분모인 유효투표수가 줄어들 경우 득표율 수치는 자동으로 커지는



민주,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왼쪽부터) 의원,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호중 원내대표, 고승범 금융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간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셈이다. 당내에서는 이미 순회경선 초반 과반 득표를 달성한 이 지사가 득표율 상향 조정으로 본선 직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

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측 등 추격자들은 반발할 조짐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정 전 총리 득표를 유효투표수에서 배제하기로 한

선관위 결정을 두고 "우리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었다"고 불만을 표하며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중심 박지원...난감한 민주

윤석열 불법 혐의 변질 차단 주력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정국의 한 가운데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게 된 상황에 냉기습을 앓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앞서 제보자 조성은씨가 언론의 최초 의혹 보도에 앞선 시점에 박 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윤 전 총장의 불법 혐의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주력해왔다.

국민의힘이 연일 여권을 향해 '제보 사

주' 프레임으로 역공 수위를 끌어올리며 국정원장 개입설 띄우기에 나선 가운데 박 원장이 발간하며 맞불을 놓자 민주당의 속내는 더 복잡한 흐름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4일 "박 원장이 언론을 통해 대응한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 측면이 있어보인다"면서도 "한번 공개적으로 경고했으나, 더 나서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국산 원료 함유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씩 건강매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엔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 셀레늄(S)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살게 결정과당, 올리고당

1 주 문의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청 트러스트 www.edaymail.com 1 문의 고객센터 080-800-8888 (02)553-8888 www.v9genil.co.kr